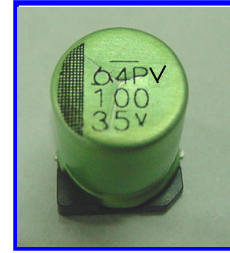


150℃ 고온도 SMD TYPE 국내최초 개발(VDA 시리즈)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전문생산업체인 **삼영전자**

(대표 변동준 <http://www.samyoung.co.kr>)에서는

신규 VDA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자동차는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형 고신뢰성의 회로부품의 요구가 증가되고 또한 실내공간을 넓게 함으로써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엔진룸내에 장착이 증가하고 있는데 엔진룸에 적용되는 전자부품은 고온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용량콘덴서인 알루미늄 전해콘덴서의 고온도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제품 개발이 대두되고 있는데 삼영전자에서는 최고사용온도 125℃ 보증품인 칩(SMD)형태인 CDA시리즈와 LEAD형태인 PXA시리즈를 양산하고 있고 이어서 최고사용온도를 150℃까지 보증이 가능한 칩(SMD)형태인 VDA시리즈를 개발완료하고 USER의 요구에 따라 개발SAMPLE을 출시중이다.

이 제품의 특징은

- 정격전압: 10 ~ 50 V
- 정격용량: 47 ~ 1000 μ F
- 제품 SIZE: Φ 10~ Φ 12.5
- 사용온도: -40℃ ~ +150℃
- 보증시간: 150℃ 1000시간 보증

으로 최근 자동차의 전자회로중 엔진룸이나 엔진에 직접 장착되는 ECU (전자회로)

EPS(전자 POWER STEERING)제어단 등 전장품에 적용할수있다.

VDA 시리즈는 고온도 안정화 전해액 개발, 화성피막 안정화 FOIL(박)의 채용및 고온내열에 강한 봉구재 개발등에 의해 150℃ 칩형태로 국내최초 개발된 제품으로 125℃는 8000시간, 105℃는 20,000시간의 실력수명이 가능한 장수명 제품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